

◀기쁜 우리 날들▶ 어머니의 추석

이효녕

돌아가는 세월의 일몰 앞에
금방이라도 웃음 내밀려는 한가위 달

가을의 들은 빈들이 아니라서
아주 완전하게 동글게 만들어

한가위 날까지 채우는 동안
귀향 열차의 흥날리는 기적소리

송편 빚던 어머니는 손길 멈추고
기다림을 더하신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깊이 패인 주름진 얼굴로
며칠동안 들판에 나가서서

동부알 햇벌에 고루 말려
꼭 고아 놓으시고
고향 뒷동산 밤나무에서

아람 밤 주워 속을 만들어
솔향 가득한 송편 찌내시며

자식을 기다리시는 어머니
달디단 사랑의 불씨로
동그런 보름달을 만드시는가

어쩔 수없이 흘러간
외로운 삶의 변방에서 돌아와
고향의 마루에 걸터앉아

넉넉한 마음으로 보름달 바라보며
어머니 가슴속에 진하게 밀려오는

지난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면
사랑은 탐스럽게 익어
애달픈 열매로 맺히고
어머니 손을 살며시 잡으면

가슴에서 익어가는 어머니 사랑
불 담은 넓은 은총으로
징처럼 찌잉 가슴 울리는가



◀그땐 그랬지 ▶ 김만철씨 일가 탈북
 지금은 너무 일반적이 되어버렸지만 1987년 당시 한 가족이 모두 탈출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것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왔다”는 그의 말은 배고픔에서 벗어난 우리들에게는 가슴을 울리는 말 이었습니다.
 그 후 남한에 살면서 여러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그의 남한 생활에서 남쪽과 북쪽, 사람 사는 곳이라면 모두 인간성이 마른 세상의 아픔을 느낍니다.

교 회 목 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예수님 안에 담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9권 3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9월23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감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채찍

정대철 前 국회의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고난과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고서 제 인생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5선 의원으로서 현 정부의 산파역을 하고도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혐의로 1년4개월간 옥고를 치렀던 ‘비운의 정치인’ 정대철(62) 열린우리당 전 고문은 요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고난을 겪은 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었습니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해준 하나님께 고마울 뿐입니다.”

사실 정 전 고문에게 신앙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이상하다. 부모인 정일형 이태영 박사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그는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 특히 8선 의원을 지낸 부친은 감신대 교수를 지낸 목회자였다. 거기다 그 자신이 젊은 시절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히 체험한 간증까지 갖고 있다.

“대학 4학년 때 폐병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성경을 통독하면 낫는다고 하기에 세 번을 통독했습니다. 그러자 기적같이 병이 나았습니다.”

“처음엔 억울해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의 고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쪽지 한 장에 30여명씩 명단을 써놓고 한명 한명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정 전 고문은 당시의 쪽지 10여장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말씀따라 행하기▶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이다

◀인품따라 행하기▶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듣지도 전하지도 말라
 부정적인 말은
 부정타는 말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34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6(이사야 40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474장	다 같이
기 도 Pray		이금선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사무엘하6:1-15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20년 vs 석 달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88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1,358 총액: \$ 389,405.70

◆9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주 차	안 내
2	노은숙		<현관>
9	이광희	*최현철서재오 향촌직	김순자 노은숙
16	이규임		<성전입구>
23	이금선		임혜자
			<새교우>
30	이재영		이광희 장유진

◆9월의 교회력◆

주 일	모임 행사
2	정기구역예배(7)
9	권사기도회(13)
16	
23	구역장, 인도자(28)
30	이삭줍기주일 선교회월례회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pm

추석이네요. 이맘때면 단 물 흙백 든 햇과일들이 더웠던 여름날의 기억을 간직해 달라는 듯 여기저기 넉넉한 모양으로 쌓여있었습니다. 내일 밤쯤엔 달이라도 보러 마당에 나서겠습니다. 고향에서 누구라도 내가 보는 달 보며 내 생각 해주기를 바라며.....

- 교우소식
*<이사> 장기숙 집사, 순영, 성용. ☎534-3004 31 Alexander St. Cockle Bay
- 오늘은 『성문밖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헌금을 모두 우리교회가 아닌 우리교회 밖을 위해 보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실겁니다.
- 아동부 봄소풍 <일시> 29일(토) 오전 10:30 <장소> Auckland Zoo
*도시락 싸서 창경원내 동물원 가던 그 시절의 추억은 그리움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 정기당회 <일시> 29일(토) 저녁 7:30분. 교회 사무실
- 구역장, 인도자 정기모임. <일시> 28일(금) 새벽기도 후
- 학생부 수련회: 오늘 오후 2:30-3:00 사이에 버스와 승용차 편으로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금주 수요일은 "수요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위해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착한 시인들▶ 달

김용택

앞산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소리로
당신이 보고 싶다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 . .
등근 달이 떠올라 왔어요.

